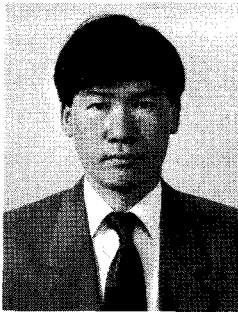


# 발명으로 꿈을 이룬 세계의 여성들 (1)



鄭榮春  
〈발명가, 코리아스엔 대표〉

이 글은 저자 정영춘씨의 저서 '나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화동출판사)의 내용으로, 저자의 승낙을 받아 연재하는 것입니다.

〈편집자 주〉

## 웨딩드레스를 마련한 6세 소녀

수잔나(애칭 수지)는 미국의, 인구 1,000명인 오클라호마 주의 작은 농촌도시인 히드로 출신이다. 1980년 4월 4일 수지는 여섯 살의 나이로 하룻밤 사이에 유명인이 되었다. 1987년 12월 7일 워싱턴 시에서 그녀는 놀랍게도 애완동물 식용 수저로 《위클리 리더(Weekly Reader)》지가 주최하는 발명대회에서 두 개의 상 중 하나를 받았다.

그녀의 발명품은 유치원생~국민학교 4학년 생애 이르는 미국 소년·소녀들이 제출한 발명품 중 가장 뛰어난 것이라고 인정받았다. 미국 전역 20만 명의 학생들이 참가한 이 대회는 어린 학생들에게 분석적이고 창조적인 사고력을 북돋아주려는 데 의의를 두고 있었다.

어떻게 이런 발명품을 만들어낼 생각을 했을까. 수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집에서 기르는 아기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주고 나서 더러워진 수저 씻는 일을 좋아하지 않았다. "내가 만약 그 수저를 닦지 않으면 엄마는 소리를 지르신다." 어느 날 엄마가 더러운 물이 가득 찬 싱크대 속의, 애완동물 먹이들로 지저분한 수저를 씻으라고 했다. '나는 이 일이 싫다'라고 생각했다.

"엄마가 말한 대로 그것을 닦아라"하고 어머니는 다시 말했다. '고양이들이 먹을 수 있는 수저가 있었으면...'

그녀는 수저를 닦지 않아 잔소리 듣는 일에 지쳐 있었다. 그래서 수지는 캔에서 먹이를 떠낸 뒤에 접시에 먹이와 같이 놓으면 잘 부서지는, 먹을 수 있는 새 수저를 고안했다. 그 재료는 유아용 과자 재료를 사용하였고, 애완동물의 입에서 나는 불쾌한 냄새와 제조할 때의 효소냄새를 제거하고 비록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숯을 첨가해 사용했다. 그리고 식욕을 돋우고 기생충 서식을 막기 위해서 마늘을 사용했다. 이것들을 모두 혼합해서 모양을 만들어 구웠다. 이 수저 모양의 애완동물 식

용 수저는 우윳빛 뼈다귀처럼 생겼는데 고양이와 개를 위해 만들어졌다.

수저는 워싱턴 시를 방문해 그 수저를 박람회 출품한 후, 오클라호마 주 국회의원들과 상원의원들을 방문했다.

그리고 처음으로 백악관을 방문하였다. 그녀는 펜실베이니아 거리의 검은 울타리 문을 통해 과학기술 사무실로 곧장 갔다. 대리고문과 면담이 끝난 그녀는 신문, 라디오 그리고 텔레비전과 인터뷰를 했다. 그러나 백악관에서 마침 대통령이 부재 중이어서 레이건을 만나지는 못했다.

텔레비전 카메라가 돌아가는 동안 수저는 자유분방한 분위기를 유지했다. 수저가 워싱턴 시를 떠날 때까지 수저에 대한 보도는 끊이지 않았다. 오클라호마로 돌아온 뒤에 수저는 교육부장관과 입법위원, 주 상원위원과 국회의장으로부터 몇 개의 공로증을 받았다.

여섯 살 된 수저는 이미 《위클리 리더》지로부터 받은 미화 500달러의 저축채권을 어떻게 쓸 것인지 생각해두고 있었다.

“웨딩드레스를 마련하는 데 쓸 예정이다. 18세가 넘게 되는 날을 위해 말이다.”

### 가장 어린 소녀 발명가

1961년 9월 6일 태어난 베키 슈뢰더는 특허권을 보유한 가장 어린 미국 소녀다. 오하이오 주 톨레도 출신인 금발의 앳된 10살 소녀는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도 읽고 쓸 수 있는 장치를 고안해냈다. 그 고안은 종이 아래 얇은 발광판을 놓은 것이었다.

항상 열심히 공부하는 베키는 황혼빛이 드는 어느 날 그것을 생각해냈고 즉시 실천에 옮겼다. 베키는 그 때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다.

“주차장에서 생각해낸 일이었다. 나는 어머니께서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사고 계실 때 차 안에서 숙제를 하며 앉아 있었다. 저녁무렵이라 주차장은 점점 어두워졌고, 어둠 속에서도 글을 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

했다. 나는 형광성의 장난감에 대해 생각했고, 그 아이디어를 갖고 집에 돌아왔다. 다음 날 동네 과학교재 가게에서 39센트짜리 형광페인트를 한병 사서는 부엌 식탁에 앉아 몇 장의 도화지에 형광페인트를 칠한 다음, 창문이 없는 욕실에 가서 문을 잠그고 불을 꺼보았다. 도화지는 어둠 속에서 빛을 냈다. 나는 그 위에 줄어 쳐 있는 공책을 놓고 글을 쓰기 시작했다. 불은 꺼져 있었지만 무엇을 쓰고 있는지 알 수 있었으며, 나중에는 그것을 읽을 수도 있었다. 나는 매우 흥분되고 감격해서 욕실에서 뛰쳐나와 부모님께 ‘성공이에요! 성공이에요!’라고 소리쳤다.”

그 날 이후 베키는 ‘빛을 내는 것’에 대한 연구를 계속했다. 연구를 계속하는 동안 새로운 사실들도 알게 되었는데, 예를 들면 형광 물질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60초 동안 백열 등 빛이나 햇빛에 노출시켜야 하고 그 정도 노출시킨 뒤에 형광물질이 내는 어렴풋한 빛은 15분 이상 지속된다는 것이었다. 그 빛은 줄 쳐진 공책종이 세 장을 통해서도 볼 수 있을 만큼 충분했다.

결국 베키는 글 쓰는 종이 밑에 반쳐 쓸 수 있는 받침대를 고안했는데, 글 쓰는 사람을 안내하기 위한 검은 줄이 있는 것과 다른 한 가지는 빛을 내는 선이 있는 평평한 받침이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내는 책받침 발명으로 12살에 첫 특허를 얻은 베키는 그 후 이 발명품을 기초로 하여 다섯 개의 응용발명을 더 추가할 수 있었다.

두 번째 응용발명은 그림을 그리고 게임을 즐기고 또한 미술을 할 수 있게 할 목적으로 덮개를 덧붙인 것이고, 세 번째의 발명은 사용자가 선을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느낄 수 있게 한 것이며, 또 다른 변화는 종이를 비추기 위해 형광페인트 대신 건전지를 전원으로 사용한 조명장치였다.

그 후 베키의 발명은 주머니 공책램프 형태로 되어 셔츠나 코트의 주머니에 넣고 다니기

에 알맞도록 발전되었다. 넓게 펼치면 불빛을 방출하는 건전지가 들어 있는 형광 줄무늬 물체의 두루마리(roll) 형태였다.

이 발명품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베키는 “시라소니나 고양이, 부엉이를 위한 것은 아니다. 밤에 환자에게 방해되지 않고 희미한 불빛 아래 병실에서 서류나 차트를 작성할 의사나 간호원, 암실에서 일하는 실험실의 연구원, 또 조명이 꺼진 상태에서 글을 써야 하는 영화나, 연극 평론가들을 위해, 또한 깜깜한 교실에서 슬라이드를 보아야 하는 학생들을 위한 것이다”라고 대답했다.

베키는 또 다른 용도에 대해서 말했다. “밤에 속도위반 딱지를 떼는 경찰이라든가, 메뉴나 청구서의 글씨를 알아볼 수 없는 아늑하고 낭만적인, 은은한 조명의 음식점 등에 유용하게 쓰일 것이다.”

10대 소녀시절 베키는 발명을 하고 기타를 연주하는 것이 가장 즐거운 일이었다. 그러나 마스크에서 그녀를 특별히 ‘가장 성공하기 쉬운 소녀’로 인정한 이유는 아마 그녀가 한창

싹이 트는 에디슨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세계에서 16세의 나이에 여섯 개의 특허를 가진 소녀는 베키가 유일하다.

베키는 자신의 성공을 아버지에게 돌린다. 아버지는 베키의 생각을 추진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용기와 전문적인 도움도 주었고, 특허를 얻기까지 많은 조언을 해주었다. 결국 베키의 발명은 아버지 찰스 슈뢰더(Charles Schroeder)의 사업이었고, 발명가면서 특허 변호사 역할을 해준 셈이다.

이제 30대가 된 베키 슈뢰더는 B.J.Products 사를 운영하고 있다. B.J.는 베키 제인(Becky Jane)의 머리글자다. 베키는 형광받침을 생산하며, 아버지와 함께 국민학교, 중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 학생들에게까지도 발명과정에 대해 정기적으로 강연을 하느라 매우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다.

아버지 찰스 슈뢰더는 “거의 누구나 발명을 할 수 있다. 발명은 큰 연구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단지 좋은 생각과 그것을 올바르게 추진하는 것뿐이다”라고 말한다. <계속> <♣>

## 안 산업피해구제 상담실 설치 내

상공자원부 무역위원회는 UR협상 타결이후 수입으로 피해를 입은 국제산업의 산업피해 구제제도 이용이 계속 증가될 것에 대비하여 1994. 4. 15일부터 산업피해구제 상담실을 설치·운영함으로써 시장개방이 가속화됨에 따른 국내산업피해 구제를 위한 행정지원을 강화키로 하였습니다.

동 상담실의 적극적인 이용을 바랍니다.

### 상담실위치

과천정부제2청사 4동1층118호  
(전화 : 504-5617, 500-2574, FAX : 504-1213)